



남원 도동동 지사협, 맞춤형물품 지원사업 호응

남원시 도동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15일 저소득가정에 필요한 물품(100만원 상당)을 지원하는 맞춤형 물품 지원 사업을 추진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협의체 신규사업 맞춤형 물품 지원사업으로 갑작스러운 위기 사유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대학생 청소년 부부에게 유모차를 지원했으며, 커튼 구입비가 없는 독거노인 가정에 커튼을 설치했다. 유모차를 지원받은 가정은 "4개월 된 아이가 있어 유모차가 꼭 필요했는데 이렇게 생각지도 못한 선물을 받아 기쁘고 우리 아이를 잘 키워서 사회에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이처럼, 도동동 협의체는 지역의 어려운 이웃을 찾아내고 살뜰히 보살펴 왔으며, 앞으로도 다양한 특화사업을 통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에게 지역 주민들의 따뜻한 마음을 전할 계획이다. /남원=김기두 기자



우석대, 완주 모악산 웰니스 축제로 ESG 활동 전개

우석대학교(총장 박노준)는 13~14일 전북도립미술관 야외광장에서 진행된 완주 모악산 웰니스 축제에서 ESG 활동을 전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축제 기간 스포츠지도학과· 유아특수교육과· 제약공학과· 체육학과· 태권도학과· 한약학과 재학생을 비롯해 LINC 3.0 사업단· 대학일자리본부· 진로취업지원센터 교직원 등 50명은 LNT(Leave No Trace) 실천 캠페인을 시작으로 수요자 맞춤형 진로 취업캠프와 한약 시음 체험, 피부 건강검진 등을 진행했다. 이종석 LINC 3.0 단장은 "지역 축제에서 우리 학생들이 ESG 활동을 전개하게 돼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장은성기자



남원 도동동, 이웃에 위생용품 나눔 실천

남원시 도동동(동장 소선자)은 15일, 중앙교회(담임목사 정종승)에서 위생용품(환각약 50만원)을 후원했다고 밝혔다. 남원시 죽향동에 위치한 중앙교회는 오랜 시간 지역사회 주민을 위해 성금품을 기부한 바 있고, 겨울철 연탄 봉사도 진행하고 있다. 이번 후원 물품은 뇌병변 심한장애 아이를 보살피고 있는 한부모가정에 지정 기탁했다. 정종승 담임목사는 "앞으로도 이웃과 더불어 사는 교회가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임실군, 여성문화 체험 교실 운영

임실군이 4월 11일부터 5월 3일까지 관촌 도하지 도예문화원 임실행복누리원에서 여성들의 건전한 여가 활동 및 문화 체험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여성문화 체험 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 여성문화 체험 교실은 115여 명을 대상으로 가족공예 목공예 도자기공예, 냇강공예 4과목이 운영 여성들의 선호도가 높고 실용적인 프로그램으로 가정을 돌보노라 지친 여성들에게 힐링 체험의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임실을 이모씨는 "휴식 반기고 나만의 다기 세트를 만들어 볼 수 있는 기회를 줘서 고맙고, 이웃과 대화도 하면서 힐링하는 시간이 됐다"고 말했다. /임실=전충영 기자

어르신 종합 복지공간으로 새로워졌다

순창군 노인회관 개관식 개최... 여가·일자리·교육 한자리서 가능

순창군 노인회관이 지난 12일 개관식을 갖고 어르신들의 여가와 일자리, 교육이 한자리에서 가능한 전용 종합 복지공간으로 새롭게 문을 열었다. 이날 개관식에는 최영일 군수, 신정아 의장 김용식 순창군 노인회장, 강병문 노인대학장, 군의원과 11개 읍·면 분회장 및 각 마을 노인회장 등 200여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총사업비 8억5,000만원(특교세 3억, 군비 5.5억)이 투입된 순창군 노인회관은 지난해 3월 실시계획용역을 시작으로 같은 해 11월 본격 공사에 착공하여 5개월간의 새단장을 거쳐 최근 준공했다. 당초 순창군노인회관은 2006년부터 장애인·노인종합 복지관으로 사용되어 오다가 장애인복지관이 별도로 건립되면서 이번에 새단장을 통해 어르신 전용공간으로 탈바꿈했다.



특히, 2층에는 어르신들의 일자리전담기관인 시니어클럽이 입주하여 사무실과 관장실 및 소규모 회의실이 새롭게 들어서 그동안 일자리 접수 및 상담을 위해 시니어클럽까지 오가야 했던 어르신들의 불편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사예교실, 사군지교실, 컴퓨터 교실, 노인대학강실도 새롭게 정비하여 2층에 보금자리를 마련했으며, 3층에는 기존 130명 수용가능했던 대강당을 200명까지 수용할 수 있도록 대폭 확장에 그동안 나누어서 운영해야 했던 노인대학 수업이 한 공간에서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게 됐다. 마지막으로, 4층 옥상에는 상설 동호인들이 즐겨찾는 탁구장 활성화를 위해 오랜 숙원이었던 에어컨 설치와 화장실을 설치해 많은 호응을 얻을 것으로 기대된다. /순창=이양원 기자

김제시, 독거노인 자살예방 '물들여' 자원봉사단 운영

김제시보건소와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지난 12일 독거노인 자살예방프로젝트로 '물들여' 사업 운영을 위한 자원봉사단 임명식을 개최했다고 15일 밝혔다. 물들여 사업은 올해 자살예방 신규사업으로 노인 자살위험군의 정신건강 예방서비스 강화를 통한 사회적 지지체계 마련을 위해 자원봉사단을 모집해 경로당을 이용하는 노인에게 무료 머리 염색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최근 독거노인의 고독사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독거노인 특성상 신체적 기능 저하, 우울 등 정서적 돌봄이 필요한 대상자에게 염색이라는 매개체를 활용해 자살예방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기획했다. 자원봉사단에는 덕암정보고 미용과 학생들과 미용실 킷즈 헤어클럽 선우애자 원장이 참여하기로 했으며 오는 5월부터 본격적으로 봉사단 경로당에 찾아가 염색 미용봉사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덕암정보고등학교 한 학생은 "전공을 살려서 자원봉사활동을 하고 싶었는데 이렇게 좋은 기회로 독거 어르신들에게 염색을 해드릴 수 있어 너무 뿌듯하고 앞으로 만나게



될 어르신들에게 행복과 따뜻한 선물해 드릴 수 있으면 좋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노인 인구 증가와 더불어 노인 자살 문제의 심각성을 시민들이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제시의 정신건강 및 자살예방에 도움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보건소(063-540-2717), 김제시정신건강복지센터(063-542-1350)로 문의하면 된다. /김제=곽노태 기자

무주구천동 백련사, 신도회 회장 취임식 가져

무주구천동 백련사(스님스 평산) 신도회 회장 취임식이 15일 열렸다. 이날 취임식에서는 오용선 초대회장과 평산 백련사 스님님을 비롯한 최태호 구천동 노인회장, 신도회 회원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실천면 소재 구천동 레저비이호텔에서 열렸다. 삼귀의, 경과보고, 평산 스님님의 격려사, 발원문 등의 순으로 진행된 이날 행사에서 오용선 초대회장은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행하여 부처님의 지비를 세상에 전파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아울러 "신도의 역량과 조직을 강화하고 불자로서의 자긍심을 높여 불자 화합에 역주하겠다"고 언급했다. 한편, 백련사는 덕유산에 자리한 절로 신라 신문왕때 창



건됐으며 대한불교 조계종 제 17교구 본사 금산사 말사이다. /무주=전문선 기자



김제시, 지역아동센터 아동복지교사 간담회

김제시(시장 정성주)는 지난 12일 드림스타트 사무실에서 아동의 건전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는 지역아동센터 아동복지교사 11명과 관계 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가졌다고 15일 밝혔다. 아동복지교사는 지역아동센터에서 아동학습지도 교사로 보건복지부에서 지난 2007년 6월 제정된 일자리 사업으로 시작해 아동권리보장원 소속이었던 아동복지교사들을 2015년부터 시에서 공무원으로 아동복지교사 지원사업 관리 및 지원을 담당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지역아동센터 현장에서 취약계층 아동 300여명을 대상으로 기초학습 등 독서지도와 영어, 예체능 교육을 담당하는 교사들의 현장에서 보고 느낀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하고, 애로사항 및 노하우를 함께 공유했다. 이날 아동복지교사들은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처우 개선에 대하여 건의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전주비전대 응급구조학과, 헌혈 동참

전주비전대학교 응급구조학과(학과장 김덕원)는 12일 헌혈의 집 전주 효자센터에서 헌혈에 동참했다고 밝혔다. 이날 응급구조학과 교수진과 1학년 20명이 참여했다. 전주비전대학교 응급구조학과는 2023년 전북혈액원(원장 강진석)과 사회공헌협약을 체결 꾸준히 헌혈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김덕원 학과장은 "응급구조학과 학생들이 따뜻한 마음과 사명감을 가진 응급구조사로 성장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혈액원과의 사회공헌협약을 추진했다"고 말했다. 강진석 원장은 "주기적으로 헌혈에 동참해 준 전주비전대학교 응급구조학과에 감사하는 마음을 전하며, 혈액은 항상 부족한 상황으로 많은 국민들이 헌혈에 동참해주셨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장은성 기자



무주군 공무원노조, 완주·순창·장수군 상호기부

무주군 공무원노동조합(지부장 오순덕)이 완주군(지부장 김상관)과 순창군(지부장 홍영기), 장수군(지부장 윤동수) 공무원노동조합(이하 공무원노조)과 고향사랑 상호기부를 실천하며 지역사회에 귀감이 되고 있다. 15일에는 완주군(250만 원)과 순창군(100만 원), 장수군(100만 원) 공무원노조 조합원들이 무주군을 찾아 고향사랑 기부금 450만 원을 기탁했다. 이들은 "무주군 발전과 군민 여러분의 행복을 응원하는 모든 조합원들의 마음을 모아 기탁을 하게 됐다"라며 "각 지역 공무원노조가 앞장서 실천하고 있는 지역 간 상호기부가 고향사랑기부 활성화는 물론, 지역상생 발전을 도모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라고 입을 모았다. 무주군 공무원노조 오순덕 지부장은 "우리 조합원(45명 1인당 10만 원)들도 흔쾌히 동참해주셔서 다른 시군과 귀한 뜻을 함께할 수 있었다"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 발전해 나가는 노조가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무주군 공무원노조는 지난해에도 완주와 남원, 순창, 장수군 공무원노조와 함께 고향사랑 100만 원 릴레이 기부에 동참한 바 있다. /무주=전문선 기자



전주대, 순창군 연계 유학생 장담그기 체험 호응

전주대학교(총장 박진배)는 지난 13일 순창군과 연계 중국 교환학생 30명을 대상으로 장 담그기 체험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한국을 찾은 중국 교환학생들은 △산타공원 △순천의 장명인·기능인과 함께 장 담그기 시연 △매주 만들기 퍼포먼스 △풍물 대동굿 △고추장 만들기 맛을 낸 한정식 △즉석떡볶이 요리 및 갯천산 트레킹 등 순창의 맛과 멋을 즐겼다. 이번 활동에 참여한 HE YANQ(중국 교환학생, 인공지능학과)은 "한국과 중국의 문화는 공통점이 많지만 한국에 와서 실제로 체험해 보면 그 차이점을 더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것 같다"며 "한국을 대표하는 장과 전통음식을 맛보고 강천산을 거닐며 한국의 맛과 멋, 문화를 좀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의미있는 시간이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심영국(호텔경영학과 교수) 국제교류원장은 "유학생들이 지역사회 정착지원 프로그램과 지자체의 협력을 통해 전북이 유학하기 좋은 도시, 살고 싶은 도시로 인식돼 우수 글로벌 인재가 입학에서 취업까지 책임져주는 지역의 글로벌 대학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남원 어린이집 연합회, 보육교직원 역량 강화 교육

남원시 어린이집 총연합회(회장 이은정)는 지난 13일 춘향문화예술회관에서 보육교직원 200여 명을 대상으로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의무교육인 안전교육으로, 어린이 이용 시설관리 주체는 종사자를 대상으로 응급처치 실습 등을 포함한 어린이 안전교육을 매년 실시하여야 하며, 이번 교육에서는 이론교육으로 영유아 흡연위해예방교육과 어린이집 응급상황 시 신속하고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심폐소생술 실습 위주의 교육으로 진행되었다. 교육에 참여한 한 보육교직원은 "이번 교육을 통해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방법을 정확하게 숙지하게 되어 영유아 및 주변 사람들의 위험 상황 시 빠른 대처가 가능할 것 같다"라고 만족감을 표현하였다. 한편 차미화 여성가족과장은 "어린이집은 예상치 못한 상황이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곳인 만큼, 보육 교직원에게 대한 지속적인 안전교육을 지원, 부모들이 신뢰할 수 있는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에 노력을 기울여야겠다"고 전했다. /남원=김기두기자